

## '국가 면역치료플랫폼' 유치 성공, 전남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꾼다

암·치매 등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인 '국가 면역치료 플랫폼'을 전남에 유치함으로써 165조 세계시장 선점

\* (면역치료) 우리 몸의 면역세포(백혈구, T세포 등)를 활성화하여 암, 치매 등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3세대 치료법 / 기존 치료법(방사선, 화학요법)에 비해 부작용이 적음

### □ 추진배경

- 면역치료는 약물·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암, 치매 등 난치성 질환\*을 치료할 수 있는 "꿈의 치료제"임. 특히, 말기암 환자에게 치료효과 탁월
- 국내 암 환자는 현재 100만명을 넘고, 치매환자는 '50년까지 4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어서 면역치료제 개발 및 국산화가 절실
  - 국내 암 환자 매년 23만명 신규 발생(2019, 보건복지부 발표)

### □ 주요 추진내용

- ('전남' 유치 성공) 「국립 면역치료연구원」 전국 최초 기획('17)
  - 지속적으로 정부 건의, 국가계획 반영 요구('18 ~ '19)
  - ⇒ 타 시도(충북)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공모에 선정(20. 5. 29.)
- (국내 최고시설) 국비 230억원 포함 총사업비 460억원을 투자하여, 화순전남대병원 내 3,000평 부지에 최첨단 장비와 연구시설 구비
- (전주기 플랫폼) 면역치료제 개발 → 비임상(동물실험) → 임상 시험
  -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

### □ 추진상 문제점 및 극복사례

- ① (정부 관심 부족) 관계 부처(산업부, 복지부, 과기부)는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, 국가사업 반영이 어렵다고 난색 표명('17 ~)

▶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반영('17) → 도지사와 장관 면담 등 3년 간의 끈질긴 정부 설득('17 ~ '19) → 과기부 소관 확정, 예산 반영 성공('19. 8)

② (전남의 관련 R&D·산업기반 취약)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의사, 과학자, 교수, 기업인의 협업이 필수적이나, 전남은 관련 전문 인력 부족, 면역치료 관련 기업 역시 1곳에 불과((주)박셀바이오)

▶ 국내 최고의 전문가 70 여명, 대학.기업.종합병원 등 17개 기관 섭외, 참여 확정

\* GIST, 포항공대 / 삼성서울병원, 화순전남대병원 / (주)헬릭스미스, (주)파미셀 등

③ (선도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) 2009년 국가첨복단지로 지정받아 총 4조원이 투입된 충청도에 비해 바이오 인프라 부족

▶ 전남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기획했으며, 충북 오송에 없는 종합병원 (화순전남대병원)의 기능·역할 등을 강조, 차별화 논리 적극 개발

### ‘165조’ 항암시장 선점...첨단의료복합단지도 ‘청신호’

**기대 효과는**

국산화 기술개발 컨트롤타워 성공시 경제 파급효과 클 것  
고용창출·기업유치 등에 기여  
의료 R&D 인프라 구축 탄력

전남도가 유치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차세대 항암치료백신인 면역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  
부공부전한 면역치료제 수요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원천기술 개발 등 산업화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경





김영록 전남지사와 구충근 화순군수가 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유치 확정에 따른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있다. 사진 오른쪽은 화순전남대병원 전경.

**▲ 면역치료플랫폼 유치성과 보고 / '20. 6. 2. 남도일보**

## □ 성과 및 기대효과

○ (치료백신 주권 확보) 국내에서는 항암면역치료에 연간 5천만원 이상 소요되어 매년 수천명의 국내 암환자가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남

▶ 항암 면역치료제 자급화로 고가의 약값을 낮추고, 외화 유출 방지 가능

○ (지역경제 파급) 항암면역치료제(165조) 및 치매치료제(1,200조) 세계시장 선점 가능, 기업 30개社 유치, 좋은 일자리 1,160개 창출

▶ 첨단 바이오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마중물 기대